

노동시장의 변화와 부업하는 여성¹⁾

임연규 연구원(성인지데이터센터)

- 기존의 근로소득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부업에 대한 관심은 활발해지면서, 'N잡러', '제2의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하여 부업의 규모 및 부업을 하는 취업자들의 특성을 파악함. 조사의 특성상 임시휴직자를 제외한 취업자에 한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 임금직이 주업이거나 부업인 경우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 부업을 하는 취업자들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여성, 고령층, 임시일용직,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부업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보이며, 부업을 하는 취업자들의 주된일자리 임금수준이 낮음을 확인함.
- 최근 N잡러로 표현되는 부업양상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듯하나 현재의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움.
-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초자료로 쓰일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임.

1) 본 원고는 KWDI 성인지통계 리포트 22-1(누가 부업을 하는가)을 일부 수정 및 편집한 것입니다. 원문은 성인지통계 홈페이지 (<https://gsis.kwdi.re.kr/gsis/kr/board/BoardDetail.html>)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업하는 취업자의 규모 파악의 필요성

- 기존의 근로소득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부업에 대한 관심은 활발해지면서, ‘N잡러’, ‘제2의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음.
- 최근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부업의 범위 재규정, 통계 분석 등에 관한 필요성이 증가함.
 - 미국은 노동시장이 더 유연하여 일찍이 높은 수준의 부업비율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인 미국의 부업비율은 2009년 금융위기 전에는 5.2% 수준에서 2014년까지 4.9%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증가해 2019년 5.1%까지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4.5%로 하락함. 성별로 확인하면 여성의 부업비율이 더 높음²⁾
 - 일본은 노동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인구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2017년 6월에 부업 및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도록 ‘취업 모범규칙’을 개정함, 기존 규칙에는 종신고용을 보장받는 반면, 부업 및 겸업이 금지되었으나, 2017년 6월 개정을 통하여 부업 및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2018년 1월 개정에서는 기업이 부업 및 겸업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여 부업 및 겸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음.³⁾
 - 한국의 노동시장 맥락 차원에서 살펴보면, 오랫동안 하나의 일자리에만 종사하는 관행이 있었고, 일부 직종에서는 겸업을 금지하여 구조적으로 부업을 할 수 없는 집단들이 존재해왔음. 우리나라도 향후 일본과 같은 노동인구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의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채용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어 노동정책 및 노동통계도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실물경제 및 노동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주어, 연쇄적으로 근로소득의 악화를 유발하고 있음. 소득 보충을 위한 노동 추가공급의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수요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작용하여 부업 일자리의 규모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됨. 특히 이번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와는 다르게 대면서비스업종을 비롯하여 직접적으로 실물경제에 위기를 가져와 부업 특성상 일용직 및 단순 업무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더 악영향을 미쳤을 것임.
-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 한편, 일각에서는 노동 공급이 그에 부응하지 못하여 노동력의 부족을 호소하기도 함,⁴⁾ 이러한 노동 부족은 단기일자리 및 단순 업무에서 주로 발생해 부업활동으로 채워지기 쉬운 일자리임. 따라서 향후 부업비율은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임.

2) Economic Research Division,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U02026620>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U02026624>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U02026622> (2022.5.30. 인출)

3) 한국금융연구원, 일본 정부의 부업·겸업 허용 및 가이드라인 제시, 주간금융브리프 27권 8호, pp.26-27

4) 신준섭, [단독] “마늘 깔 한국인, 전멸 수준” 외식업계 구인난 비명, <국민일보>,

2022.07.25.,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09499&code=61141111&sid1=eco&cp=nv1>, 2022.07.25. 인출

- 본고에서는 그동안 부업이 어떤 의미로 조사되어왔으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시기별 부업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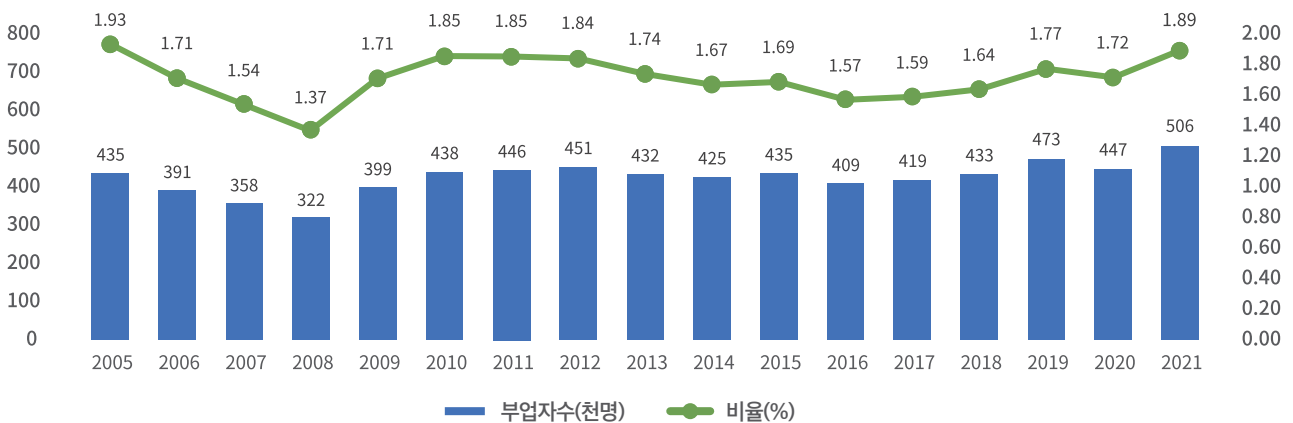
- 부업(副業)은 본업에 대비되는 말로, 주로 행하고 있는 일 외에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갖는 직업을 의미함.
 - 이를 통계적으로 주업과 부업을 구분해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념을 차용할 수 있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주간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경우, 취업시간이 가장 긴 직업을 주업(주된 일자리, Main job)으로, 주업 외의 일을 부업(다른 일, Secondary jobs)로 간주함.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서는 부업규모 및 부업시간만을 살펴볼 수 있고, 부업하는 사람들의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등과 더불어 인적속성별 차원에서 경제활동상태 및 주업속성별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음.⁵⁾
 - 부업자수 : 부업하는 취업자의 규모
 - 부업비율 : 부업자수가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 시기별로 살펴보면, 경제위기 후 회복하는 국면에서 부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이를 노동시장에서의 일시적인 불일치로 봐야 할지, 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으로 재편으로 봐야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것임. 이전의 금융위기발 경제위기는 경기적 실업의 성격인 반면,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실물경제를 바꿈으로써 구조적실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이후 산업 및 노동시장의 추이를 파악하여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준 것인지, 영구적인 개편을 가져올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산업의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했다면 노동시장 역시 산업구조에 맞게 재편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산업별로 일자리수급과 부업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임.
- 2021년에는 1.89%로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이전인 2019년 1.77%보다 상승하였음. 2020년에는 부업비율이 1.72%로 2019년보다도 낮아져서 전체 일자리규모가 축소되어 부업의 규모 및 비율도 감소하였음을 가늠해볼 수 있음.
 -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발 경제위기 이후로 부업의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서도 경제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서 일자리의 증가 및 추가소득확보 측면에서 공급과 수요가 모두 증가하여 부업비율 및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5)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정성미(2017), 임용빈·최형재(2017)의 연구가 있음.

● 부업비율은 등락이 있지만, 부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는 증가추세로 나타남.

- 연도별 부업비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취업자의 2% 미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함.
- 2021년에는 1.89%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인 2005년⁶⁾ 1.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달성함.
- 향후 부업비율이 예년수준으로 다시 감소할지, 코로나19발 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하여 더 상승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그림 1> 부업자수 및 부업비율 추이금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부업을 하는 취업자들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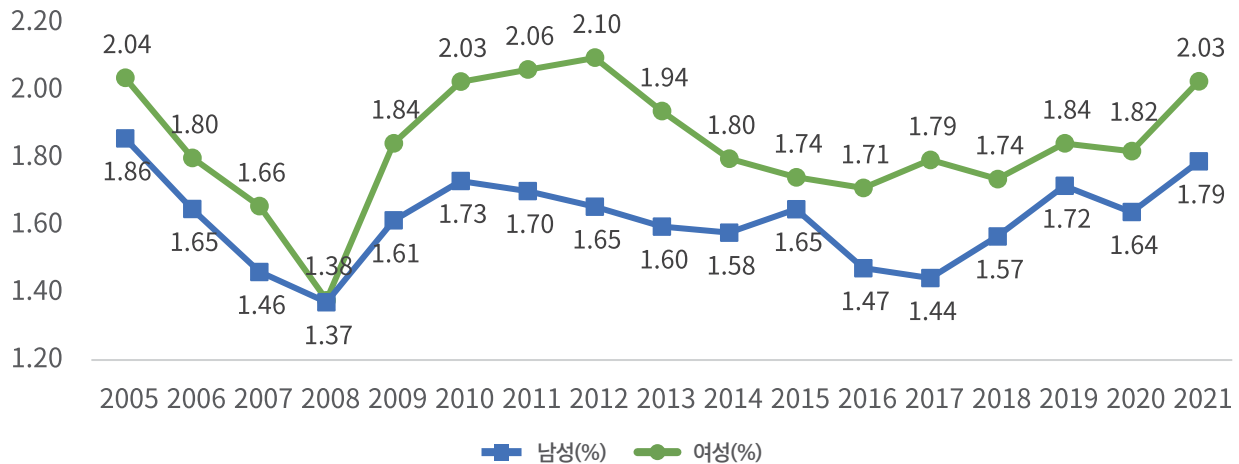
●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속성 및 이들의 주된 일자리 속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 고령층,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이 많음. 이들은 주업에서 버는 임금이 낮으며, 추가소득을 위하여 부업을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노동시장에서 표준으로 간주하는 '정규적인 일자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시간이 남아서 혹은 소득을 더 벌기 위해서 2가지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게 됨을 시사함. 특히,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고령층이 더 높은 부업비율이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겪는 구조적인 차별요인이 고령층의 부업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부업비율은 현재 표준방식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노동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므로 정책적으로 주목해야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6) 2002년~2003년 국내 카드대란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며 부업참여도 활발해진 것으로 보임.

- 2005년부터 여성의 부업비율이 남성의 부업비율에 비해 0.1%p~0.4%p 높으며, 부업비율의 변동폭 역시 여성의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나 여성의 부업시장에서 불안정성이 더 내포되어있음을 의미함. 또한, 부업자수도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 대비 여성 규모(역성비)⁷⁾ 역시 증가 추세로, 이는 전체 취업자의 역성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 부업이 여성과 밀접한 노동문제이며 규모측면에서 소수이지만 부업하는 여성에 대하여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2> 성별 부업비율 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부터 부업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60대와 7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최근들어 10대의 부업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젊은층이나 고령층이 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업을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임. 노동인구구조 차원에서 빈곤의 노인화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가늠해볼 수 있음.

- 혼인여부별, 교육정도별로 살펴본 결과, 기혼집단, 중졸 이하집단이 더 높은 부업비율을 보여,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인 경우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은 양상과 관련된 연령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별로 부업비율을 구한 결과,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의 경우 약 3%대의 부업비율을 보여 높은 편이며, 특히 시기와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 이들 집단은 추가 소득에 대한 필요가 상존해있음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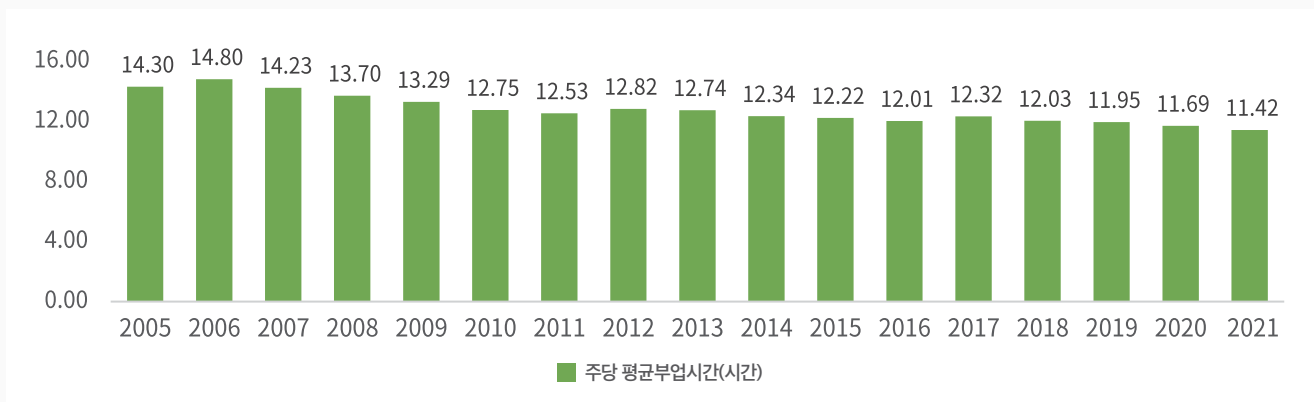
7) 일반적으로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로 계산되나, 성인지통계에서는 남성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여성의 수준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 남성 100명당 여성의 수를 나타내는 역성비를 주로 사용.

부업하는 취업자들의 근로시간

- 최근으로 오면서 주당 평균 부업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전체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에 따라 부업시장까지도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인지, 혹은 클라우드소싱과 같이 일거리를 나눠 갖는 식으로 노동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업에 참여하면서 한 사람당 수행하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이전과 다르게 부업일자리의 특성 및 참여자의 특성이 변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부업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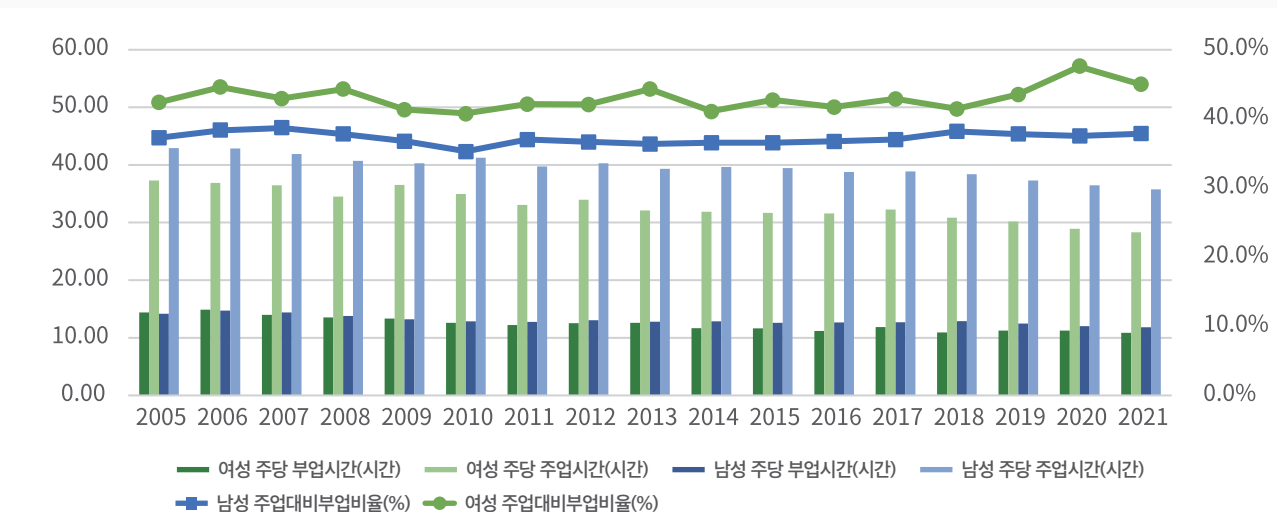
<그림 3> 주당 평균 부업 시간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 주업근로시간 대비 부업근로시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으며, 2020년에 크게 증가하였음. 여성과 남성의 부업 시간의 차이는 불과 1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주업에서 여성과 남성의 부업 차이가 약 5~7시간인 것과 대조되며, 여성에게 주업과 부업은 그 중요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림 4> 성별 주업시간 및 부업시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부업하는 취업자들의 주된일자리 임금 수준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자료를 통하여 주된일자리의 3개월 간 평균임금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부업을 하는 집단의 주업 임금수준이 더 낮으며, 부업하는 여성이 임금수준이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업하는 여성의 주업임금은 부업을 안하는 여성이 받는 임금의 60~70%
- 부업하는 남성의 주업임금은 부업을 안하는 남성이 받는 임금의 70~80% 수준

<표 1> 성별/부업여부별 3개월 간 주된일자리의 월평균임금

구분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부업함(만원)	78.8	96.0	121.0	120.3	127.6	142.9	146.9	150.9	137.7
	부업안함(만원)	110.1	135.9	166.7	173.9	181.8	193.3	201.2	206.1	211.5
	전체(만원)	109.5	135.1	165.9	173.0	180.9	192.5	200.3	205.1	210.1
	임금비율(%)	71.6	70.6	72.6	69.2	70.2	73.9	73.0	73.2	65.1
남성	부업함(만원)	157.8	181.5	235.8	242.5	237.8	254.1	252.7	259.9	248.6
	부업안함(만원)	191.7	238.0	277.2	285.6	291.1	305.8	315.5	318.9	328.2
	전체(만원)	191.2	237.2	276.6	285.1	290.4	305.1	314.4	318.0	327.0
	임금비율(%)	82.3	76.2	85.1	84.9	81.7	83.1	80.1	81.5	75.7

*임금비율 : (부업하는 근로자의 주된일자리 평균임금)/(부업안하는근로자의 주된일자리 평균임금) × 10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 시간당 평균임금으로 구한 결과 역시 부업을 하는 경우의 주업 시간당 평균 임금수준이 더 낮음. 부업을 안하는 경우의 성별임금격차와 부업을 하는 경우의 성별임금격차 모두 60~70%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주업만 하는 여성의 일자리 상황도 그리 좋지 않겠으나, 부업까지 하는 여성은 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라는 이중고에 처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부업하는 집단의 주된 일자리 임금은 시간당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남녀 모두 부업을 안하는 집단의 임금의 70~80%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여성의 경우 남성 대비 주업 근로시간이 짧아 시간당 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부업을 안 하는 경우의 주된 일자리 임금과의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됨.

〈표 2〉 성별/부업여부별 3개월 간 주된일자리의 시간당 평균임금

구분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부업함(만원)	0.472	0.626	0.846	0.859	0.877	1.016	1.201	1.108	1.121
	부업안함(만원)	0.593	0.774	0.979	1.039	1.087	1.174	1.248	1.289	1.324
	전체(만원)	0.591	0.771	0.977	1.036	1.083	1.172	1.248	1.285	1.320
	임금비율(%)	79.6	80.8	86.4	82.7	80.7	86.5	96.2	86.0	84.6
남성	부업함(만원)	0.817	0.980	1.341	1.379	1.334	1.486	1.452	1.524	1.480
	부업안함(만원)	0.955	1.270	1.513	1.572	1.592	1.679	1.741	1.781	1.841
	전체(만원)	0.953	1.266	1.510	1.569	1.589	1.677	1.736	1.777	1.835
	임금비율(%)	85.5	77.2	88.7	87.7	83.8	88.5	83.4	85.6	80.4
임금 역성비	부업함(%)	57.8	63.8	63.1	62.3	65.7	68.3	82.7	72.7	75.7
	부업안함(%)	62.1	60.9	64.7	66.1	68.3	69.9	71.7	72.4	71.9
	전체(%)	62.0	60.9	64.7	66.0	68.2	69.9	71.9	72.3	71.9

1) 임금비율 : (부업하는 근로자의 주된일자리 평균임금)/(부업안하는근로자의 주된일자리 평균임금) × 100

2) 임금역성비 : (여성의 주된일자리 평균임금)/(남성의 주된일자리 평균임금) × 10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 부업하는 여성 중 저임금근로자비율⁸⁾이 감소추세였으나 2021년에 반등하여 증가함, 2018년부터 30%대가 되었으나, 2021년 43.1%로 증가, 남성의 경우에도 부업을 하는 임금근로자의 30%가량이 저임금근로자였으나, 2018년부터 20% 수준이며, 여성과 대조적으로 2021년까지 유지됨.

● 전체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부업을 하는 여성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져 코로나 19발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의 상황이 악화된 것을 확인해 볼 필요 있음. 이들에게 부업은 추가소득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인데 부업일자리도 불경기의 영향으로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부업을 하는 경우,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이 2021년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남성은 2021년 전년 대비 -4.3%의 변화율을 보인 데 비해, 여성은 두 배 정도인 -8.7%의 임금 변화율을 겪음. 한편, 2021년 저임금근로자의 부업비율은 3.4%로, 이는 비저임금 근로자의 부업비율인 1.4%의 2배를 넘는 수치임.

〈표 3〉 성별/부업여부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여성	부업함(%)	54.3	57.1	51.2	54.4	55.6	47.7	46.7	38.6	38.6	35.1	36.3	43.1
	부업안함(%)	40.5	40.7	38.6	37.7	37.1	37.1	33.9	25.3	25.3	22.5	23.8	21.4
	전체(%)	40.8	41.0	38.9	38.0	37.4	37.3	34.1	25.5	25.5	22.8	24.0	21.8
남성	부업함(%)	27.4	28.9	27.7	27.3	29.1	23.5	23.5	19.0	19.0	20.4	21.6	20.8
	부업안함(%)	16.2	16.2	15.6	15.1	14.4	15.0	15.1	12.0	12.0	11.0	11.7	10.7
	전체(%)	16.4	16.4	15.8	15.3	14.6	15.2	15.2	12.1	12.1	11.1	11.9	10.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각년도

8) 전체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2/3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로 주된일자리의 임금을 통해 성별/부업여부별 집단의 저임금근로자비율을 산정함.

부업의 의미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실태조사 필요

● 현행 부업 조사의 한계

- 불황일 때 원래 하던 주업을 잠시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조사상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다시 정의를 내리게 된다면, 실제로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갖게되는 부업을 주업으로 판단하게 됨.
- 불황은 부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의 부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퇴출되어 부업의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함.

● 부수입 조사의 필요성

- 임금의 출처가 다른 부수입의 경우는 주업의 확장개념으로 간주하므로 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음, 부수입이 증가하는 분야는 호황산업일 것이므로, 추후 노동시장 역시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분석 및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
- 현행 조사를 유지하면서 국세청 자료를 통하여 고정 수입 이외의 수입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점차 다양해지는 경제활동 양상을 고려하여 고용 위주의 조사가 아닌 소득출처 위주로의 조사로의 개편을 고안해볼 수 있음

● 부업의 다양한 유형 파악의 필요성

- 조사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비임금 근로 형태로만 2가지 이상의 다른 직업에 종사할 때에는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이는 최근의 부업시장을 잘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님, 한 명의 취업자가 성격이 상이한 비임금근로를 하는 경우, 이는 산업구조 전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아 정책대상에서 간과되거나 누락될 수 있음, 특히 자영업자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상 고민해봐야할 지점임.
- 비임금근로자대상 부가조사시 부업과 관련된 조사설계를 고려해보는 것을 제안하며, 추후 종사상지위 개편과 더불어 부업의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함.

● 변화하는 부업 파악 및 맞춤형 정책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 경제위기 이후, 근로소득이 저평가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제2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재테크로서 부업의 의미가 대두되는 추세임. 이는 취약계층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여러 가지 근로형태를 통하여 부수적인 소득을 얻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의 부업의 양상은 변화하고 있지만, 노동정책 및 그 근거가 되는 노동통계는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노동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부업을 둘러싼 맥락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펼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기반 복지정책 변화의 필요성

-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보편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듯이 고용상태보다는 근로소득을 근거로 하는 복지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등장하는 부업의 유형은 임금 일자리에서 벗어나서 비임금 근로 성격을 띄고 있음,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 수입, 개인의 재능을 활용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추가수입 등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방식의 부업이나, 클라우드소싱 등을 통하여 프리랜서로 여러 업체와 동시다발적으로 일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근로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에 대응하고 근로취약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해 부업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보호받는 노동이 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정책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며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또한 요구됨.

● 참고문헌

- 신준섭, [단독] “마늘 깔 한국인, 전멸 수준” 외식업계 구인난 비명, <국민일보>, 2022.07.25.,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09499&code=61141111&sid1=eco&cp=nv1> 2022.07.25. 인출
- 임용빈·최형재. (2017). 부업 참여 및 부업 근로시간의 결정요인: 기혼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40(2), 31-68.
- 정성미. (2017).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월간 노동리뷰, 2017년 2월호, 51-67.
-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4>(2022.6.23. 인출)
- 한국금융연구원. (2018). 일본 정부의 부업·겸업 허용 및 가이드라인 제시. 주간금융브리프, 27(8), 26-27.
- 통계교육원, http://sti.kostat.go.kr/window/2018a/main/2018_sum_8.html (2022.5.31 인출)
- Economic Research Division,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U02026620>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U02026624>
<https://fred.stlouisfed.org/series/LNU02026622> (2022.5.30. 인출)